
韓國民族主義와 統一의 課題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東 軾

指導教授 高 性 俊

1985年 月 日

金東軾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인

副審

인

副審

인

1985年 月 日

目 次

I. 緒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 및 研究方法	2
II. 民族主義의 一般理論	4
1. 民族主義의 概念	4
2. 現代民族主義의 動向과 展望	11
III. 韓國民族主義의 課題	15
1. 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	15
2. 韓國民族主義의 性格과 課題	18
IV. 統一이데올로기 : 韓國民族主義	24
V. 民族統一의 課題	26
1. 韓半島 問題의 性格	26
2. 統一問題에 대한 民族主義的 視角	29
VI. 結論 : 統一이데올로기 - 韓國民族主義 - 의 課題	38
1. 目標價値로서 民族主義의 확립	38
2. 民主化	40
3. 自立的 民族經濟의 實現	40
4. 對北韓 受容政策의 開發	41
5. 韓半島 問題의 韓國化	42
參 考 文 獻	44
Abstract	47

I. 緒 論

1. 研究目的

民族의 宿願인 統一問題의 認識에 대한 많은 反省이 그동안에 있어왔다. 그러나 그 反省의 視角이 모두 一관된 理念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統一問題의 認識에 있어서 “理念的 混線”이라고 할 수 있는 現象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統一은 民族主義의 要請이다.

“民族主義는 오늘날 분명히 全世界的 規模의 現象이며 그것은 近代文明의 物質的 및 知的 發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人類의 政治的 關係에는 물론이요, 그 經濟的 精神的 關係에도 점점 더 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¹⁾ 이 말은 Carlton J. H. Hayes의 말이지만 당시(1959)와 세계의 事情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大同小異한 것이 오늘날 세계의 現實이다.

2次大戰 이후 民族主義(Nationalism)는 상당한 기간 동안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에 의해 배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國際主義가 當爲的인 命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國際關係의 實際에서 名分으로 내세워지는 國際主義는 當爲的 命題로서가 아니고 冷酷한 힘의 論理와 自國의 利益의 保護에 있다. 理性的인 질서 아래서의 共同責任意識을 위한 國際主義가 아닌 것이다.²⁾

우리가 國際主義를 敵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그러는 것은 眞正한 民族主義의 理念에도 背反하는 것일 것이다.

위와 같은 現象 속에서 우리는 民族主義의 要請을 認定하고 그 座標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分斷 40년 동안 우리의 統一努力과 그 正當性의 根據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점을 反省해볼 때 民族主義를 다시 한번 整理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統一의 理念的 源泉은 民族主義에 있다. 民族主義의 接近을 떠나

1) Carlton J. H. Hayes, *Nationalism: A Region*, 車基壁 譯, 「民族主義: 理念과 歷史」(서울: 한길사, 1981), p.11.

2) 李奎浩, 「民族的 正體性을 위한 鬭爭: 第3世界에 있어서」(서울: 文佑社, 1983), p. 84.

서는 統一의 名分이 正當化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民族主義의 문제는 單純하지가 않다. 많은 學者들이 民族主義의 曖昧模糊性和 함께 民族主義에 대한 理論的 研究와 體系化的 不在를 指摘하는 한편 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의 性格을 의심 해 왔던 것이다.³⁾

위와 같은 事情下에서 出發하여 한국의 民族主義를 定立하고 民族主義的 視角에서 統一問題의 認識方向을 定立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다.

우선 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의 本質을 整理해보려는 것이다.⁴⁾

다음에 韓國的 現實이 要請하는 韓國 民族主義를 이데올로기로서 모색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韓國民族主義의 視角에서 當爲的으로 要請되는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과 方向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하나의 틀 속에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皮相的 考察에 始終할 수도 있다. 그러나 關聯된 문제들을 일관되게 全體的으로 眺望한다는 점과 問題의 提起라는 측면에서 意義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範圍 및 研究方法

民族主義의 문제를 論議한다는 것은 방대한 범위에 걸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接近할 때 17世紀 이래의 유럽의 歷史를 망라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2次大戰后의 新生國家들의 民族主義의 比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韓國의 統一理念으로서 韓國民族主義의 理念을 定立하고 그에 따른 統一問題의 認識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要求되는 사실들에 限定해서 論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民族主義에 對한 考察은 一般論에 그치는 概觀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3) 理論的 研究의 體系化的 不足에 대한 指摘은 Gale Stokes, "The Underdeveloped Theory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Vol. xxx1 No.1 (October, 1978), p.150. 民族主義가 全體主義, 民主主義, 社會主義 등과 野合 또는 受容한다는 점을 지적 "貞節없는 女人" 과 같다고 보기도 한다. Anthony D. Smith, *The theory of Nationalism*(New York : Harper & Row Publication, 1971), p.27.

4) 民族主義의 研究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Karlw. Den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ationality* (Cambridge : The M.I.T Press, 1969), pp.17 - 19.

統一問題에 대한 考察에서도 具體적인 統一政策의 內容과 方案, 그리고 그에 대한 추이과정보다는 重點을 統一問題에 대한 民族主義的 視角과 관련된 사실에 限定하여 論議의 대상으로 삼았다.

本 論文에서는 民族主義의 일반이론으로서 民族主義의 概念과 展開過程, 그리고 現代民族主義의 動向과 展望을 概觀한 后, 韓國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의 課題를 定立하고, 韓國民族主義의 課題인 韓半島 統一問題의 性格과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分析한 后, 民族主義的 視角에서 統一政策을 反省하면서 統一政策의 課題를 續釋하려고 하였다.

研究의 方法은 文獻研究에 의하였으며 規範的 接近方法, 歷史的 接近法을 使用하였다.



II. 民族主義의 一般理論

1. 民族主義의 概念

가. 民族과 民族主義

民族主義의 概念을 規定한다는 것은 매우 困難한 문제이다. 民族主義를 둘러싼 諸問題에 관해서 學者들 間의 見解가 서로 다른 部分이 많은 것이 實情이다. 이와 같은 研究의 困難性을 가져오는 原因은 民族主義를 다루는 言語의 多樣性和 模糊性, 그리고 民族主義가 끊임없이 變化하는 歷史的 過程의 所産이기 때문이다.⁵⁾

일반적으로 民族主義(Nationalism)를 論議의 對象으로 할 때에 등장하는 것은 民族(Nation)이라는 概念이다. 「Nation」이라는 말의 語源은 라틴語의 「Natio」인데 race(種族)나 birth(血統)에 해당되는 種族的 意味를 가진 말이다.⁶⁾ 그러나 「Nation」은 우리 말의 「국가」, 「국민」, 「민족」의 세 뜻을 아울러 가진 말로 사용되고 있다.⁷⁾

「Nation」의 概念을 明白히 하는 効果的인 方法은 국가와 국민과 민족의 區別을 分明히 하고 그 關係를 규명하는 것이다.

國家는 人爲的인 政治體이며 自然的인 存在는 아니다. 그 特色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關係로 成立되는 權力機構라는 點에 있다. 한편 國民은 이 政治體制內에서 一定한 主權의 支配를 받는 사람들의 集團이다. 따라서 國民은 民族과는 달리 人種的 制約을 받지 않는 政治的으로 편성된 人間의 集團이다. 이에 비해 民族은 特定 人種과 言語 및 基本的 生活樣式을 公通으로 하는 사람들의 集團이며, 國民과는 달리 自然的인 性格과 歷史的 내지 社會的 性格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民族은 人種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自然的이며 生活樣式을 公通으로 한다는 점에서 歷史的, 社會的인 것이다.

5) 民族主義가 다루는 民族(Nationalities)을 生動하는 歷史的 힘의 所産으로 본다.

Hans Kohn,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New York : D Van Nostrand Company, 1965), p.9.

6) 國土統一院, 「統一理念으로서의 韓國民族主義에 관한 理論 定立」(1973), p.6.

7)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외 이념과 실태」(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1), p.10.

國家와 國民, 民族의 關係를 볼때, 歷史的으로 가장 먼저 出現한 것은 國家라고 할 수 있다. 國民은 市民國家 내지 近代國家가 成立한 뒤에야 비로소 成立한다고 볼 수 있다. 民族의 경우, 自然的 性格에 對한 意識은 상당히 오래 된 것이지만 歷史的, 社會的 性格에 對한 意識은 보다 나중의 일이다. 民族이 國民에 대신하는 國家의 유일한 構成要素라는 自覺과 主張이 이뤄진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Nation」의 意味 內容이 國家, 國民, 民族의 차례로 歷史的 變遷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⁸⁾

이상의 考察을 통해서 民族 概念을 國家와 國民의 概念과 區分할 수 있었다. 그러나 「Nation」의 概念이 「民族」 概念으로 規定된다 하더라도 「民族」 概念의 內容이 무엇이나 하는 點을 밝히는 作業이 또한 必要하다.

民族의 本質을 파악함에 있어 그 前提가 되는 概念規定은 主觀的인 側面과 客觀的인 側面으로 區分할 수 있다. 오늘날 民族에 對한 定義는 區區한데 主觀說은 民族의 本質的 要素로서 精神, 感情, 意志 등의 心理的 契機를 내세우고 있고, 客觀說은 歷史的 事實을 中心으로 共同血緣, 共同言語, 共同文化, 나아가서 政治, 經濟, 生活 등의 共同體로서 民族을 說明하려고 한다.⁹⁾

Renner, Simmel은 民族의 本質은 主觀的 感情에 依하여 形成되며 이 感情은 家族的 感情, 階級的 感情, 黨派的 感情, 社會的 感情, 그리고 民族的 感情으로 發展하여 民族意識을 굳혀 民族 結合의 強化劑가 된다고 말한다.

한편 Meinecke, Falckenberg, Hegel 등은 形而上學的인 民族精神을 내세워 民族이 最高共同社會라는 前提下에 民族理念이 拘束力을 가지며 民族文化를 創造하는 母體로 傳統化, 生活化 된다는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反面에 客觀說의 立場을 취하는 見解로 Maurenbreche, W.Mitschelich, Spann 등의 血緣共同體說, Fichte, Hans Freyer 등의 民族形成의 要因이 言語의 統一에 있다고 보는 立場, A. Vierkandt, Malinowski 등의 文化共同體說, H.O.Ziegler F.Hertz 등의 地域共同體說, Otto Bauer의 歷史的 運命共同體說 등이 있다.¹⁰⁾

그러나 以上과 같은 事實만으로는 한 民族과 다른 民族을 區分하는 基準으로 不足한 點이 있고 民族이란 絕對的 區分을 하기에는 不可能한 點이 있는 對象이며, 概

8) 上揭書, pp.10 - 13.

9) 國土統一院, 前揭書, p.6.

10) 上揭書, p.7.

念 또한 客觀的 見解나 主觀的 立場 中에서 어느 하나를 擇하는 兩者擇一로 說明되지 않는다.

民族이란 血緣, 地緣과 같은 自然的 共通性的 기초 위에 言語, 傳統, 風習, 宗教 따위의 文化的 共通성을 契機로 하는 運命共同體로서 歷史的으로 形成된 것이며 그 결과 특정한 民族意識, 民族性, 民族精神을 共有하는 人類의 歷史的 集團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¹¹⁾ 端的으로 말하여 客觀的 要素와 主觀的 要素가 調和를 이룬 가운데 個性的 自覺을 가진 하나의 歷史的 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民族概念을 基礎로 하고 있는 民族主義(Nationalism) 역시 그 內容이 明確하지 못하고 多樣的한 것이다.

앞에서의 「Nation」의 國家, 國民, 民族의 뜻 중 「Nation」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Nationalism」을 國家主義, 國民主義, 民族主義로 해석할 수 있다.

國家主義란 國家를 으뜸으로 생각하며 그 權威와 意思에 絕對的 優位를 認定하는 立場에서 國家의 富強을 圖謀하려는 思想과 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主義는 國民의 利益과 권위를 옹호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立場에서 近代國家의 形成을 지향하는 思想과 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民族主義는 民族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그 獨立과 統一과 發展을 꾀하려는 사상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¹²⁾

Hans Kohn에 依하면 民族主義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또 構成員 全員에게 스며들고 있다고 主張하는 하나의 精神狀態이다. 民族主義는 民族國家를 政治組織의 理想的인 形態로 認定하고 民族을 모든 創造的인 文化的 에너지와 經濟的 福祉의 源泉으로 着做한다. 人間의 最高의 忠誠心은 따라서 그의 民族에게 바쳐져야 하며 이는 그 自身の 삶이 民族의 安寧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만 可能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¹³⁾

Boyd C. Shafer는 民族主義의 要素로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 ① 共通된 領土, 民族, 言語 또는 歷史的 文化에 對한 사랑,
- ② 民族의 政治的 獨立, 安定, 그리고 國威宣揚에 對한 欲望,

11) 上揭書, p.8.

12) 차기벽, 前揭書, pp.13~14.

13) Hans Kohn, "Introduction: The Nature of Nationalism," *The Idea of Nationalism*, 白樂晴編, 「民族主義란 무엇인가」(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1), pp.36-37.

- ③ 民族이라는 막연한 때로는 超自然的인 社會적 有機體에 대한 신비로운 獻身,
 ④ 國家 自體를 目的視함과 아울러 個人은 오직 國家만을 爲하여 存在한다는 獨斷,
 ⑤ 自己 나라는 世界에 으뜸가는 程度까지는 아니라도 다른나라 보다 優越해야 하며 이 目的을 爲하여 공격적 行動을 取해야 한다 等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 모두가 民族主義의 一面만을 말하는 것으로 個別的으로는 不充分하다고 보며, 民族主義란 眞正한 또는 꾸며낸 共通의 歷史的 經驗을 가지고 將來도 別個의 集團으로서 共同生活을 계속해 나가려는 공동된 욕구를 가지는 집단을 結合시키는 感情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以上에서 論議한 사실들로 부터 續澤해 볼때 民族主義란 民族이라고 스스로 자각한 民族集團에서 나타난 民族的 傳統, 民族的 利益, 民族的 使命을 強調하는 組織의 行動原理 및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民族을 過去와 結付시켜 民族的 傳統, 現在와 結付시켜 民族的 利益, 未來와 結付시켜 民族的 使命 등이 民族主義 理念의 構成契機라고 보았을 때 民族主義에 對한 이들의 構造와 機能을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

民族主義에 있어 民族的 傳統의 強調는 「一體化의 象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民族 文化의 保存과 伸張, 民族的 功利的 양양, 民族的 英雄, 偉人의 讚揚, 民族的 發明 내지 藝術品에 對한 尊敬心の 換氣, 나아가서는 國慶日, 記念碑, 彫像, 神話等으로 나타난다.¹⁴⁾ 이러한 傳統의 強調는 民族主義 담당세력의 性格에 따라 保守的 侵略的으로도 될 수 있고 進歩的, 平和的 또는 拘束的, 全體主義的으로도 될 수도 있으며 自由的, 民主主義的으로도 될 수도 있다. 傳統의 強調가 지니는 意義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으나 一般的으로 保守勢力이 民族主義를 담당할때 그런 傾向이 强하게 나타난다. 傳統이 民族의 神話的 起源에 까지 소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며 이 때에는 使命感과 結付되어 超國家主義의 양상을 띤다.

民族的 利益은 現實性和 觀念性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어느 면이 顯在化하느냐에 따라 民族主義는 크게 性格이 달라진다. 民族主義가 植民地에서 獨立을 追求하고 있는 境遇거나 그것이 上昇的인 階級에 의해 추진되어 被支配 階級도 部分的이나 利益의 分配를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民族的 利益이라는 觀念은 現實性을 띠어 廣範한 國民階層에 뿌리를 박게 된다. 그러나 獨立을 쟁취한 후나 體制가 下降

14) 車基壁, “戰後 民族主義의 方向,” 「思想界」, 1963.12, pp.65 - 66.

期에 들어서면 支配層이 내거는 民族的 利益은 觀念化하고 階級的 利益이 現實化하기 쉽다. 그래서 現實的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 民族的 利益이라는 觀念은 虛僞意識으로 化하여 社會的 矛盾을 은폐하고 계급적 忠誠을 抑壓하는 이데올로기의 側面이 前面에 나타나게 된다. 民族主義에는 國內의 階級的 秩序를 水平化하는 傾向과 反對로 그러한 계층을 固定化하는 경향이 함께 內包되고 있으므로 그 中 어느 경향이 優勢하게 되는가는 民族的 利益이라는 觀念이 실제로 어떻게 機能하는가에 달려 있다.

民族的 未來와 結付시킨 民族的 使命의 強調은 한 民族의 世界에 있어서의 存在理由와 將來의 行動目標를 단적으로 提示하여 自國民을 정신적으로 고무하고 또는 潛在的 내지 顯在的인 敵國民을 정신적으로 武裝解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民族主義의 國際主義에로의 轉化와,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戰의 擴大는 民族的 使命感의 國際化에 박차를 가하여 데마고그化 경향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상에서 民族主義理念의 構成契機라고 본 民族的 傳統, 民族的 利益, 民族的 使命의 構造와 기능은 民族主義의 肯定的 面과 否定的인 面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民族主義는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 볼때 民主主義나 共產主義와 같이 獨立된 理念과 制度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政治的으로는 自由主義나 全體主義와도 結付될 수 있으며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나 社會主義와도 結付될 수 있는 脆弱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民族主義가 民主主義的인 進步的 民族主義가 되려면 合理性과 自由가 最少限의 條件이 되어야 한다.¹⁵⁾

나.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民族主義가 歷史의 生動하는 힘의 所産인 民族과 開聯되어 있는 것이라면 民族主義의 概念을 理解하는데에 있어서 民族主義의 歷史的 展開過程을 考察하는 것은 當然하다.

E. H Carr 는 近世 以後의 民族主義의 發展過程을 3 期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¹⁶⁾

第 1 期은 文藝復興 以後 프랑스 革命에서 나폴레옹戰爭을 거쳐 비엔나會議로 끝나는 時期이다.

15) 閔錫弘, “民族主義의 理念,” 「思想界」, 1966.2. 附錄 p.38.

16) Edward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Lodon : Macmillan & Co. 1968), pp.1-26.

第2期는 프랑스革命의 所産을 계승하면서 1次大戰을 거쳐 베르사이유 講和會義로 끝나는 時期이다.

第3期는 1870年 以後에 始作되는 國家의 近代的 統一의 所産을 이어 받아 1次大戰에서 2次大戰이 일어나기 까지의 時期이다. 17)

이 時代區分은 始期와 終期가 중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견해는 1945年이라는 2次大戰 終結 當時에 나온 것이어서 그후의 民族主義의 發展에 對해서는 약간의 展望을 하는데에 그치고 있다. 18)

近代民族主義의 形成過程에 실천적形態를 提供한 것은 1789年의 프랑스革命때 부터이다. 學者에 따라서 見解가 相異한 것이 事實이지만 프랑스革命을 民族主義의 起點으로 잡는 것이 通說이다. 19)

그러나 이러한 見解에는 프랑스 大革命이 그當時 까지 成長하고 있던 民族主義 觀念의 要素들을 綜合하는 데에 寄與했다는 點에서라는 사실이 前提된다. 中世末 以來 成長을 계속한 民族意識은 프랑스革命을 계기로 自發的으로 國民國家를 形成하고 이에 따라 民族主義의 出現을 가져 왔다. 이러한 國民國家의 成立은 舊時代의 身分制의 타파와 人民主權 思想에 따라 國民大衆을 國家利益에 參與시키는 과정에서 全國民의 意識的이고 自發的인 團合으로 이뤄진 것이다.

「自由, 平等, 博愛」의 깃발아래 탄생한 民族主義는 民主主義, 人道主義와 結合한 것이었지만 東歐 쪽으로 전파됨에 따라 차차 變形이 나오게 되었다. 나폴레옹의 유럽 征服은 各民族을 刺戟하였다. 當時의 民族主義는 市民的 自由와 平等, 그리고 專制政治에서 解放되려는 各民族들의 市民的인 統一을 指向하고 있었다. 그 時代의 民族主義者들은 적어도 理論的인 面에서, 그리고 때로는 實際的인 面에서 共同의 感情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相異한 戰線에서 連帶的으로 투쟁하였으며 民族主義는 專制的 支配形式과 사회질서를 전복하려는 것이었고 그 性格은 根本的으로 國際的이었고, 革命的이었으며, 그리고 自由를 爲한 運動이었다. 20)

대체로 19世紀의 民族主義 運動은 3가지 형태로 區分할 수 있다. 21)

17) 上揭書, pp.1-2.

18) 차기벽, 前揭書, p.14.

19) 白樂晴編, 前揭書, p.16.

20) 國土統一院, 前揭書, pp.13-14.

21) 上揭書, pp.14-15.

첫째는 독일, 이탈리아의境遇와 같이 政治的 分裂을 지양하고 國民的 統一을 달성하려는 형태,

둘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植民地였던 中南美의 獨立運動의 형태,

셋째 합스부르크帝內의 少數民族(헝가리 等)과 回教國인 터키帝國內의 基督教民族(그리스 等)의 해방과 獨立을 指向하는 形態 等이다.

그러나 中南美의 植民地 獨立運動은 얼핏보아 亞·阿의 民族主義와 類似하나 同一한 것은 아니며, 中歐나 東歐의 少數民族의 解放운동은 Carlton J.H.Hayes (1960)가 말하는 文化的 民族主義가 政治的 民族主義로 轉換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었다.

反面에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는 18世紀의 啓蒙思想과 프랑스革命 理念을 어느 程度 계승하여 自由主義와 人道主義의 要素, 아울러 普遍指向的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19世紀 이탈리아 民族主義를 代表한 사람은 Mazzini로서 그는 民族의 統一과 獨立을 個人의 自由와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Mazzini 이후 이탈리아의 民族主義는 自由主義的인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獨逸의 民族主義는 Herder의 文化的 民族主義와 浪漫主義에서 탄생한 것으로 계몽사상과 프랑스 革命에 대한 反撥로 부터 出發하였다. 그래서 民族的 傳統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신비스러운 民族精神(Volksgeist)을 내세웠다. 그리고 他民族의 獨自性이나 特異性을 認定하기 보다 獨逸民族만의 獨自性과 特異性을 強調, 프랑스 革命理念이나 自由主義를 否定하기에 이른다.

結局 유럽에는 自由主義的이고 民主主義的인 民族主義와 全體主義的인 民族主義의 理念的 對立이 나타나게 되었다.

1870年代 以後 유럽의 民族主義는 產業革命 以來 成長한 資本主義의 經濟的 要請의 結果로 帝國主義化하여 1次大戰을 통하여 諸 民族主義內의 抗爭으로 展開되었다.

1次大戰은 民族自決主義와 國際協助라는 두개의 對立的인 原則을 戰后問題 處理와 世界平和의 原理로 내세웠다. 民族自決主義는 帝國의 붕괴와 少數民族의 獨立을 가져왔으며 民族主義는 地球 도처에 擴散, 普遍的 현상이 되었다.

한편 共產主義는 이러한 世界情勢에 편승하여 反帝國主義와 反植民地主義의 代案으로 民族主義를 利用하였다.²²⁾

22) 上揭書, pp.15-18.

그 이후 獨逸, 이탈리아, 日本 등에서 다시 팽창주의적 民族主義 傾向이 다시 일어나 2次大戰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民族主義의 價値는 일단 否定的 側面이 指摘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2次大戰 이후에 展開되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變化는 다시 民族主義의 새로운 展開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現代民族主義의 動向과 展望

가. 現代民族主義의 動向

民族主義의 觀點에서 보면 近代의 歷史는 西歐에서 發生한 民族主義가 점차 非西歐 世界로 擴大되어 유럽을 비롯한 世界의 政治地圖가 민족 또는 國家 別로 再作成되는 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西歐의 民族主義에 비하여 亞·阿의 民族解放의 民族主義는 아직도 새로운 精力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現代의 民族主義라고 하면 亞·阿의 民族主義를 주로 가르키게 된다.²³⁾

亞·阿의 新生國 또는 植民地의 民族主義 運動의 根源을 다음과 같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²⁴⁾

첫째는 外部的 要因이다. 1905年 露日戰爭에서 有色人種인 日本이 승리했다는 點, 1911年 孫文의 辛亥革命, 1917年 러시아 革命과 民族解放戰術, 1918年 Wilson의 民族自決主義 提唱 및 帝國主義의 矛盾等이 民族主義의 成長을 促進했다.

둘째는 인텔리겐 차가 形成되어 民族意識을 고취시키는 한편 傳統的인 價値觀의 修正, 運動形態의 大衆化를 지향하는 등의 精神, 文化的 要因이다.

셋째는 經濟的, 社會的 要因인데 原住民의 經濟, 社會的인 要求가 支配로 부터의 自由, 解放을 부르짖게 된 點들이다.

亞·阿의 民族主義는 國際的으로는 新生國의 위신과 平等한 地位를 획득하려는 努力으로 나타나고 國內的으로는 國民의 活力을 集中化하여 近代化를 성취하려는 運動으로 表現된다. 이러한 國內, 國際的 課題는 結局 하나의 課題, 民主化와 産業化의 추진을 통한 自主的인 近代國家를 建設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러한 課題의 성취는 몇가지 難點 때문에 순조롭지 못하다.

23) 차기벽, 前揭書, pp.17-18.

24) 國土統一院, 前揭書, p.19.

첫째는 國民的 統一의 결여이다. 亞·阿의 新生國은 西方 植民主義의 분할통치로 因한 複合 社會的인 양상과 社會의 二重構造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하에 시 民主主義의 成長이 順調롭지 못할 뿐 아니라 經濟建設도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亞·阿의 政治 指導者들은 國民間의 分裂된 忠誠의 焦點들을 國家目的에로 集中시키기 爲하여 獨立 后에도 統合勢力으로서의 民族主義를 양양시키려고 부심해 왔다.

둘째는 西·阿의 新生國의 民族主義는 民族없는 民族主義라는 點에서 國民國家의 內實이 결여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亞·阿의 民族國家는 1次大戰 后에 유럽에서 獨立한 民族國家와 같이 國家의 境界와 民族의 境界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여러 種族이나 民族을 포함하고 있는 新生國의 民族主義는 원래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獨立이 아니라 하나의 國家로서의 獨立을 쟁취하기 爲하여 利用된 운명공동체로서의 心情에 依據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新生國에서의 民族的 契機는 인도를 除外하면 獨立을 爲해 結集된 心情倫理에 의거하는 것이었으므로 獨立을 達成하면 以前의 一體感은 당장에 淸산되고 再構成되어야 할 運命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亞·阿의 新生國들은 하나의 國民이 고자 하는 계기와 意思의 代替物로서 國家主義의 次元의 길을 걷게 된다.

經濟建設의 側面을 보면 亞·阿 新生國의 民族主義는 經濟發展과 政治的 獨立과의 調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民族主義 指導者들은 한편으로는 政治的 獨立의 기초를 爲하여 經濟發展의 必要性을 절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發展을 희생하더라도 政治的 獨立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民族意識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체감을 형성하려면 公同의 經驗인 植民地 支配에 對한 反感을 利用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反植民主義는 必要한 西歐의 원조를 받기 어렵게 하여 經濟發展을 鈍化시킨다. 反對로 反植民主義의 完화는 國內의 政治的統一을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結果的으로 新生國의 民族主義 指導者들은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번영 사이를, 民族主義와 脫民族主義 사이를 定期的으로 往來하게 된다.²⁵⁾

나. 民族主義의 展望

2次大戰이 終結될 무렵 이른바 自由主義의 性向을 가지고 있던 코즈머폴리턴들

25) 차기벽, 前揭書, pp.18 - 20.

은 全世界가 하나의 文明體系下에 하나의 國家 또는 政府에 依한 國際秩序가 可能할 것으로 期待했다. 26)

지금 西歐에서는 民族主義가 그 基盤을 거의 잃고 超民族的인 地域集團 속에서 協助하려는 경향이 急速度로 進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7)

한편 어떤 이들은 完全할 程度의 産業化와 그것을 通하여 安定된 社會가 이루어지면 民族主義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豫見한다. 28)

이와 같은 사실들은 民族主義가 時代에 落后된 생각이며 終局에는 그 意義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現實과 民族主義의 本質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생각들은 否定된다. 29)

국제정치의 現實이라는 側面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指摘을 할 수가 있다.

첫째, 現在의 國際社會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층 더 強大國 中心의 權力政治가 支配的인 영향력을 行使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는 近代化의 實現이 民族國家들의 民族主義的 感情을 高潮시켰으며 各 民族國家 內의 競爭이나 特定國家內의 民族들 사이에서도 심한 갈등을 조성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른바 産業化된 先進國과 低開發國家들 間의 빈번한 접촉과 교류가 文化的인 葛藤을 助成시켰다는 點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民族主義의 未來가 더욱 더 강한 民族的 跳戰에 依해서 國內政治와 國際政治의 새로운 再編成을 가져오리라 30) 는 예측을 하게 한다.

國際社會의 組織化는 相當한 期間에 걸쳐 歷史的, 經濟的, 政治的 近接性에 의거하는 몇개의 超民族的 집단으로 權力 單位가 점차 응집해가는 完만한 과정을 밟으면서 進行되리라고 豫상되지만 各 民族國家 內에 發展段階에 差異가 있는 한 民族主義는 統合勢力으로서 또는 抵抗勢力으로서 여전히 生命을 지속하게 될 것이며 비록 그런 과정이 完成된다 하더라도 民族은 性質上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31)

26) 陳德奎, 「現代 民族主義의 이론구조」(서울: 지식산업사, 1983), p.351.

27) 차기벽, 前揭書, p.20.

28) 陳德奎, 前揭書, p.355.

29) 上揭書, pp.352 - 355.

30) 上揭書, p.356.

31) 차기벽, 前揭書, p.21.

다른 많은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민족주의가 내세운 理念이나 目標가 達成되면 그순간 부터 민족주의는 와해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 될 수도 있다.

그러나 民族主義의 本質上 民族主義가 追求하는 理念과 價値는 過程上의 것이지 終局的인 歸着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³²⁾ 民族主義가 實現하려는 價値의 實體는 歷史가 未完成인 限 영원히 未完成의 事實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民族主義는 民族이 남아 있는 限 歷史의 動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32) 陳德奎, 前掲書, p.355.

Ⅲ. 韓國民族主義의 課題

韓國民族主義의 課題를 論議하기에 앞서 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의 性格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점이 民族主義의 當爲성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

가. 이데올로기의 性格

일반적으로 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의 性格, 다시 말해서 民族主義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해서 많은 論議가 있다. 이 문제에 對한 精確한 認識을 爲해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概念的인 論義가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關한 論議에서는 다음과 같은 共通的인 合意點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多數의 사람들에 의하여 共有되고 있는 價値判斷의 信念이며 行爲의 原則으로 機能하고 있는 論理的 主張이라는 點이다.³³⁾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의 類型으로는 흔히 마르크스主義와 民主社會主義, 부르주와民主主義, 그리고 民族主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提起되는 問題는 民族主義를 除外한 나머지는 모두가 思想史的이고 知的인 傳統과 思想體系의 明哲化가 있고 具體的인 政治行動綱領이 分明한데 民族主義는 미약하다는 點이다. 그래서 民族主義는 前이데올로기의, 또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爲한 기반적 조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民族主義가 다른 이데올로기와 接合하기 쉬운 유연성 때문에, 感性을 基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共通的인 全體主義와 等式의 關係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民族主義와 全體主義를 等式의 關係로 보는 것은 民族主義가 全體主義的인 政治 指導者들이나 理論家에 의해서 變形되었다는 사실을 無視하는 데에서 빚어진 잘못이다.³⁴⁾ 오히려 民族主義는 獨裁化를 방지하려는 反獨裁的 要素가 큰 것으로

33) 上揭書, p.163.

34) 上揭書, pp.165 - 198.

분 수 있고, 民族主義의 模糊性에서 비롯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民族主義의 獨裁化는 民族主義의 外部的 要件만을 구비할 뿐 民族主義의 本質的 要素를 무시한 反民族의 指導者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民族主義가 利用되는 것일 뿐이다. 35)

民族主義가 追求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政治的 指向性은 本質적으로 3 가지 사실로 要約될 수 있다. 市民自治의 實現(citizen autonomy), 領土的 統合(territorial unity), 그리고 歷史的 自己認識(historical identity)이 그것이다.

市民自治의 實現은 對等한 位置에 있는 市民들로 構成된 共同體를 形成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모두 自由로울 수 있는 權利와 自己 스스로 決定한 사실에 대하여 責任을 맡으려는 意志, 그리고 이러한 市民에 대한 人間的 生活條件을 마련해 주려는 福祉의 確保에 1次的인 目標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性格의 民族主義는 프랑스 革命 理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領土的 統合과 社會的 結束은 같은 種族, 同一 血緣集團의 人種들은 同質的인 사회구조를 일정한 영역 위에 조직화해야 한다는 民族成員의 欲求를 表現한 것이다.

歷史的 自己認識이라는 것은 民族成員의 特殊性을 그들의 歷史 속에서 거듭 확인함으로써 現實으로는 民族成員들 사이의 結束感을 높여줌과 同時에 그들 民族의 個別的 存在性을 확인해 준다는 意味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自然히 民族의 內的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며 文化的인 것에 한층 더 價値를 두게 된다. 36)

나. 民族主義의 政策課題

民族主義가 理念이나 價値로서는 상당한 共感을 認定받고 있으면서도 그 價値를 具體적으로 適用하는 과정에서는 具體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흔히 지적된다. 民族主義가 정책적 성격이 결여 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民族主義가 當面하게 된 抵抗的 課題가 너무나 巨大한 것이어서 政策化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35) 上揭書, p.41, 192.

Fascism과 Nazism, 共產主義가 그 典型이랄 수 있다.

36) 上揭書 pp.175 - 178.

차기벽은 National Interest의 개념으로 F. Hertz의 견해를 정리하여 대내적 열망과 대외적 열망을 들고 있다.

대내적 열망—민족적 통일, 민족의 대내적자유, 민족의 대내적 평등.

대외적 열망—민족적 자유, 민족적 개성, 민족적 위신.

前揭書, pp.33 - 34.

데에 있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오면서 非西歐世界의 民族主義는 政策化함으로써 民族主義的 意圖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37)

民族主義의 政策化에 있어서 前提되어야 할 것은 이데올로기로서 民族主義의 本質的 要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點이다.

民族主義의 本質的 要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38)

첫째는 平等의 실현이다. 對內的으로는 個人의 내면적 잠재력을 극대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條件의 설정이며 국제적으로는 기존체제의 現狀維持(status quo)의인 性格에 도전하는 力動的 에너지로 작용하는 점이다.

둘째는 自由의 追求이다. 民族主義가 追求하는 自由는 社會의 自由와 個人의 自由를 同質的인 것으로 인식하며 個人의 自由를 통한 全體의 自由를 實現하려는 것이다.

세째는 自律과 自治이다. 自由와 平等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民族의 存在樣式을 自律과 自治의 規範 속에서 찾자는 것이다.

民族主義의 政策化는 그 基本的 目標가

첫째, 민족의 統合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설정

둘째, 외국세력의 침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民族的 純粹性의 지속적 확보

세째, 외세의 침탈로부터 벗어나 自存的인 獨立國家로서의 民族發展 追求로 集約될 수 있다.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民族政治, 經濟的으로는 民族經濟, 文化的 側面에서는 民族文化, 社會的으로는 民族社會의 意味로 定着하게 된다.

民族政治는 일반적으로 政治가 사회구성원의 최대다수에게 최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概念에서 볼 때 계급주의적인 마르크시즘과는 本質的으로 對決關係에 서게 된다. 또 民族政治는 外國의 帝國主義勢力과 對決해야 하며 對內的으로 反民族的인 勢力, 即 비록 스스로는 民族主義的이라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民族發展의 正當한 指向課題를 外面하는 勢力의 執着과 對決해야 한다. 民族政治는 民族感情을 民族主義의 次元으로 昇華시켜야 하는데 이를 爲해서는,

- ① 民族成員의 자각된 민족의식과 感情의 高揚
- ② 民族發展의 指向方向과 論理의 指向性에 對한 成員들 간의 充分한 合意

37) 上揭書, p.226.

38) 上揭書, pp.44 - 47.

③ 이를 執行하기 爲한 民族엘리트와 民族政黨의 支持基盤 확보

④ 特定엘리트가 民族成員의 意思에 依하지 않고 誤導된 民族主義의 錯覺속에 獨裁化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民族成員의 자각의식을 길러줘야 한다.

民族經濟는 經濟的 行爲主體가 民族意識이 철저한 民族成員임을 意味한다. 經濟的 전개과정 자체가 민족성원 모두의 자발적 參與를 전제로 하는 經濟活動이며, 經濟的 利益의 配分이 民族成員의 福祉와 安全을 爲해 正義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民族文化의 핵심은 傳統文化의 現代的 再創造과 發展된 文化의 主體的 受容을 意味한다. 이를 爲해서는 이들 文化가

① 민족적인 自務心과 일체성을 확보하도록 기여해야 하고

② 민족발전을 추진하는 精神的 基盤이 되어야 하며

③ 민족성원의 感性和 意識에 응이하게 統合될 수 있는 것을 選別, 再創造해야 한다.

이러한 民族文化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効率的인 방법은 民族教育이다. 民族教育은 學校教育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意味의 社會教育까지도 그 안에 포함된다.³⁹⁾



2. 韓國民族主義의 性格과 課題

가. 韓國民族主義의 性格

民族主義는 近代國家 형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인데 역사적으로 相異한 3 時期에 제각기 다른 性格을 보이면서 登場했다.

第1期는 英, 佛 等 先進 民主國家들이 市民革命을 통해 近代國家를 형성한 時期이다. 이 時期의 民族主義의 性格은 民主的인 民族國家의 一員으로서 政治에 積極的으로 참여한다는 태도, 卽 市民意識을 기르는데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第2期는 19世紀末에서 20世紀에 걸친 시기인데 民族主義가 國際政治 무대에서 重要한 힘으로 作用하며 經濟的 利益의 옹호를 爲해 排外的 경향을 보여 軍事力의 增強으로 나타났다.

第3期는 民族主義가 世界를 움직이는 힘으로 作用하는 시기인데 2次大戰의 終結과 함께 亞·阿 植民地의 獨立이 이룩된 시기이다. 제3기의 성격은 民族이 없는

39) 上揭書, pp.227 - 235.

民族主義라는 點에 있다. 40) 제 1기와 2기의 民族主義에는 民族이 存在하고 있었지만 亞·阿 新生國家들의 경우는

① 國家의 境界가 植民地 支配에 편리하도록 구분되었기 때문에 民族의 境界가 일치하지 않았고

② 民族으로서의 精神的 統一이 植民地 政策에 依해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民族形成(nation-building)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韓國民族主義는 이상과 같은 點에서 볼 때 民族形成이 되어 있는 “ 民族 있는 民族主義 ” 라는 點이 특징이다. 41) 뿐만 아니라 多民族國家와 같이 少數民族의 문제도 없는 單一民族으로서의 民族主義를 性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土의 兩斷은 民族을 分裂시켜놓고 있고 國民的 統一을 爲한 近代化와 民主化의 課題가 充分치 못한 現實이 있다.

Hans Kohn은 民族主義를 西歐型과 非西歐型으로 구분하였다. 42)

西歐型은 個人的 自由, 社會的 平等, 法治主義, 合理主義 등을 中心으로 하는 民主的 開放社會를 이룩했으나 非西歐型은 “안에서의 自由”보다 “밖으로 부터의 獨立”에 치중하게 되어 個人的 自由보다는 國家의 權力을 강조하는 권위적인 폐쇄社會를 만들게 하였다. 前者는 民族의 근대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근대민족(국민)국가를 이룩하려는 民族主義型이고, 后者는 民族기반이 없는 곳에서 近代的 民族國家를 이룩하려는 民族主義型이 있다. 前者는 自生的이면서 도전하는 立場에 있었다는 點에서 “優越의 民族主義”였다면 后者는 外生的, 응전적 立場이었다는 점에서 “抵抗의 民族主義”였다.

韓國民族主義는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非西歐型에 속한다. 그리고 “안에서의 自由”보다는 “밖으로 부터의 獨立”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저항민족주의의 길을 걸었다. 43)

한국민족주의가 抵抗民族主義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對內的인 反封建, 即 近代化 내지는 民主的 國民國家 建設의 과제에 힘을 기우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意味한다.

40) 차기벽, 前揭書, p.73.

41) 上揭書, pp.73 - 76.

42) Hans Koh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The Macmillan & Co, 1957), pp.19 - 31.

43) 차기벽, 前揭書, pp.85 - 86.

抵抗民族主義는 李用熙가 前進的 民族主義와 함께 使用한 概念인데 弱小國과 強大國, 階層 間에 있어서의 抵抗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李用熙, “現代民族主義” 「新東亞」, 1973, 9.

따라서 韓國民族主義의 추진세력이 되어야 할 市民階層의 成長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韓國社會의 現實的 課題해결을 爲한 民族的 力量 集結이 順調롭지 못했던 것이다.⁴⁴⁾

結論적으로 韓國民族主義의 性格을 整理한다면 韓國민족주의는 民族있는 民族主義로 출발하고 있으나 分斷型 民族主義로서 統一의 課題를 안고 있다. 그리고 抵抗民族主義로서 自主性의 문제를 아직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抵抗民族主義의 길을 걷는 過程에서 이룩하지 못한 近代化 내지는 民主化의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⁴⁵⁾

나. 韓國民族主義의 課題

1) 自主性의 確立

舊韓末 以來 한국의 민족주의적 抵抗운동을 반성해 볼 때 自主意識의 兩面性이 民族內部 운동을 분열시켜왔고, 그것이 民族의 自主性을 저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例컨데 구한말의 衛正斥邪사상, 開化思想, 東學思想은 民族保全과 自主獨立을 爲한 것이었지만 思想的으로 西歐열강과 中國大陸의 支配權 中 어느 한쪽에 대한 종속적 경향을 띠는 것이었다.

그리고 열강의 식민지 쟁탈의 각축 속에서 지배층의 국제적 세력과의 제휴를 통한 自主性의 추구는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한 自主性은 얻게 하나 반대로 다른 한편에 종속하는 경향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해방후의 국토양단과 南北의 대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같은 次元에서 論할 수는 없지만 역시 自主意識의 兩面性이 作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韓國은 多邊的인 국제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單一 外勢에의 依存은 對抗外勢를 유치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單一 外勢에의 의존은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붕괴될때 對抗外勢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例를 甲申政變과 露日戰爭 后의

44) 소수의 엘리트가 민족주권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민인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45) 要컨데 한국의 National Interest의 개념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註 36) 참조

46) 차기벽은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를 自主문제, 近代化문제, 統一문제로 보고 있다. 前掲書, pp.88—95. 여기에서는 民主化의 과제를 附加하고 있다.

韓日合併에서 볼 수 있다. 47)

또 한가지 韓國民族主義가 自主성을 追求하면서 清算해야 할 점은 民族主義와 國際主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過去の 抵抗民族主義에서는 民族의 自主性에만 집착한 나머지 世界史的 普遍성과 人類性에 對한 追求가 無視되었었다. 48)

물론 國策주의의 理念에도 虛構性이 없는 것은 아니나 民族主義가 普遍的 價値를 外面할 때 과거의 歷史 속에서 볼 수 있는 民族主義의 타락이 있게 되는 것이다.

2) 近代化

近代化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흔히 歷史的인 3大 形成力이 作用한 것으로 말해진다. 民族主義, 그리고 產業主義가 그것인데 그중에서 民族主義가 가장 基本的인 原動力이라고 볼 수 있다. 49)

특히 後進國의 民族主義는 對外的으로 先進國과 同等한 地位를 차지하려는 발돋움이고, 對內的으로는 民族을 團合, 近代化를 촉진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이와 같은 課題는 結局 온 國民의 精力과 力量을 총동원하여 經濟自立을 이룩하는 것으로 귀착한다. 50)

그런데 自立經濟 確立을 爲해서는 우선 國民的 統一이 前提條件이므로 後進國 民族主義는 社會構造의 二重性과 復合社會의 양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社會개혁을 課題로 삼게 된다. 社會改革을 통해 社會正義를 確立함으로써 民族의 同一體感을 조성해야 효과적인 自立經濟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5.16 이후 韓國민족주의는 집권엘리트의 교체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데 急速한 經濟成長의 成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5.16 후 韓國에서 近代化를 주도한 核心勢力은 현대적인 行政能力과 管理技術을 습득한 中堅장교와 中堅관료들이었다. 그들은 組織과 計劃을 주축으로한 產業化가 곧 近代化라고 생각하고 行政管理에만 치중한 나머지 近代化를 爲한 內在的 發展要素들을 吸收, 動員하는 主體的 發展에 소홀

47) 上揭書, pp.88 - 90.

48) 申一澈, “저항적민족주의 : 그 對內面,” 盧在鳳編, 「韓國民族主義와 國際政治」(서울:民音社, 1983), p.76.

49) 차기벽, 前揭書, p.61.

論難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능동적인 歷史의 推進力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民族主義편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0) 近代化의 개념은 종합적인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經濟的 近代化로 파악하고 있다.

했다. 實効性 추구를 통한 正統性的 확립에 몰려 外資導入에 의거하는 大企業 위주의 外向的 工業化에 始終하고 만 感이 없지 않다. 그 結果 韓國 社會는 안으로는 사회적 二重構造가 심화되고 밖으로는 經濟的 對外 依存도가 높아졌다. ⁵¹⁾

韓國民族主義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課題의 해결은 국내정치의 民主化와 對外的 自主性的 확립과 밀접히 상호연관되어 있다.

3) 民主化

民族主義가 追求되어지면서도 民族의 意思決定의 主體가 누구이나 하는 점은 흔히 망각되어진다. ⁵²⁾ 이럴때 심각한 民族主義의 함정은 國民主權的 일체화의 번거로운 同意型的 節次를 기피하고 全體的 統合을 日常化하는 변질된 民族主義의 不具兒를 낳게 된다. ⁵³⁾

民族主義는 對外的으로는 自主와 獨立을 要求하면서 對內的으로는 國民平等의 觀念을 낳고 國民主權의 태도로 발전하게 마련인 것이 歷史적으로 밝혀진 本質이다.

또 한편 國民國家의 개념은 對內的으로 國民統合의 名分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韓國民族主義는 日帝에 對한 抵抗期에서 看過하였던 國民主義의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⁵⁴⁾

韓國의 政治形態는 흔히 權威主義라고 말한다. 이는 日帝下 植民統治의 영향과 國際 냉전구조의 전개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韓國民族主義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前近代的 要素를 제거하는 일인 것이다. ⁵⁵⁾

韓國의 政治體制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이다. 그러나 한국의 民主政治에는 大衆의 要求를 政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投入기능도 政府의 政策이 실시되는 산출기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해방후의 한국정치는 算出機能만이 一方的으로 强行되는 權威主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⁵⁶⁾

民主化를 통한 민족적 동일체감의 형성은 또한 統一問題를 해결하는 추진력으로 作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1) 申基燮, “저항적민주주의의 문제: 그 對外面,” 盧在鳳編, 前揭書, p.27.

52) 上揭書, p.93.

53) 申一澈, 前揭論文, 上揭書, p.84.

54) 李用熙, “민족주의의 개념,” 上揭書, p.214,216.

55) 孫世一, “韓國민족주의의 과제,” 上揭書, p.123.

56) 上揭論文: p.123.; 차기벽, 前揭書, p.80.

4) 統一

한국민족주의는 民族있는 民族主義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韓國民族主義는 國家主義나 國民主義의 次元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主義로서 民族統一의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의 分斷은 처음에는 外勢에 의해 他律的으로 이루어졌으나 統一은 우리의 自律的 課題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統一문제를 다룰 때 國內的, 主體的 要因의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처음에는 國際的 要因에 달려 있었고, 다음에는 國際的 要因과 國內的 要因이 잘 들어 맞아야 統一이 可能하다고 생각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國內的 要因이 優勢한 時點에 이른 것 같다.⁵⁷⁾

이는 통일방법론으로 보면 依他的 方法에서 半自主的 方法을 거쳐 自主的 方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意味한다.⁵⁸⁾ 한편 現實上의 力學關係에서 남북한 정치주체들의 存在意味가 그만큼 重要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편에는 아직도 自主意識의 兩面性을 완전히 脫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문제에는 美, 蘇를 中心으로 하는 列強間의 次元과 當事者인 南北韓間의 次元이라는 二重構造 속에서 주변 列強의 現狀維持 政策을 克服해야 할 課題가 가로 놓여 있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課題의 극복은 남북한 當事者間의 主體的인 努力을 수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民族의 참된 自主性의 확립과 근대화, 民主化에 의한 민족적 일체감과 국민적 통일의 조성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統一을 爲한 基盤造成의 意味를 지닌 具體的 實踐課題로서

- ① 近代化 推進과정에서의 二重的 社會구조를 改善하고
- ② 權位主義的 政治體制에서 民主化의 성취를 통해 國民的 一體感을 造成하는 한편
- ③ 국제관계의 多邊化와 經濟的 對外依存度를 줄임으로써 自主性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상과 같은 과제는 統一문제를 둘러싼 現實의 性格과 展望과도 相互 關聯되어 있는 것이므로 統一에 對한 政策課題의 탐색이 要淸되는 것이다.

57) 本 論文, V, 1, 2). 참조

58) 盧泰九, “한국민족주의의 理念像,” 「政經文化」, 1983, 9.

59) 박봉식, “前進的 민족주의의 과제 : 그 對內面,” 盧在鳳編, 前掲書, p.159.

IV. 統一이데올로기 : 韓國民族主義

統一이데올로기나 統一政策이 民族의 統一 自體에 目標를 두고 있다기 보다 既存體制 또는 政權의 正當性을 옹호하는 統治目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⁶⁰⁾

民族主義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 蓋然性을 無視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그러한 敎訓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民族主義는 본래 實踐的 概念이다.⁶¹⁾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規範的 性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側面이 있다. 우리가 統一이데올로기로서 民族主義를 추구한다는 것은 統一의 當爲性의 準據가 民族主義에 있기 때문이다. 民族主義에 근거하지 않는 民族의 統一이란 無意味한 權力의 統合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民族主義는 民族이데올로기의 上位概念으로서 目標文化의 性格을 가진다.⁶²⁾

그러나 한편 民族主義는 民族의 現實的 要請에 부응하면서 現實 속에서 民族의 當爲的 命題인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民族主義는 또한 實踐이데올로기로서의 側面을 가지고 있다.

結局 民族主義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民族主義가 실천적 이데올로기로서 그 內容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은 民族主義의 理念아

60) 북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데 이에 관한 연구는 李禎秀, “北韓 統一方案의 性格變化에 관한 體系的 研究(1953—1973) : 金日成의 統治名分 確保와 관련하여, ” 「統一政策」, 第5卷, 第2號(平和統一研究所, 1979).

61) 李用熙, 前揭論文, p.212.

62) 예컨대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의 上位概念이다. 盧在鳳, “韓國民族主義와 自由主義” 梁好民 等, 「韓國民族主義의 理念」(서울: 亞細亞 政策 研究院, 1977), p.221.

目標文化는 Anthony F. C. Wallace 에 의한 이데올로기 설명의 개념인데 그 要點은 대체로 目標文化: 既存文化를 變形하려는 理想사회 的 청사진.

轉移文化: 既存文化를 目標文化로 變형시키는 작용체계.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1), p.148. Franz Schurmann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기도 한다.

純粹이데올로기: 개인에게 동일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려는 관념체계

實踐이데올로기: 합리적 행동수단을 제시하려는 관념체계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22.

래 民族主義의 規範的 本質을 훼손하거나 벗어나는 일이 있는 것이다. 統一理念으로서 韓國民族主義를 定立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民族主義가 統治의 道具, 또는 正當치 못한 目標를 向한 統攝의 手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民族主義의 本質은 自由와 平等, 그리고 自律과 自治에 있으며, 政治的 指向은 영토적통합 또는 사회적 결속, 그리고 市民的 自治의 實現과 歷史的 自己認識에 있다.

統一이데올로기로서 韓國民族主義는 바로 이러한 理念的 基礎위에 그 內容을 整理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國民族主義가 統一이데올로기로서 韓國의 現實을 克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分斷의 現實과 統一문제의 本質에 대한 규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V. 民族統一의 課題

1. 韓半島 問題의 性格

가. 韓半島 分斷의 性格

1) 分斷國家 理論과 한반도 分斷의 性格

分斷國家의 定義는 分明한 것은 아니다. 분단국가의 기준에 法的 地位에 두느냐 또는 政治學의 方法을 利用하느냐 또는 兩者의 方法을 兼用하느냐에 따라 分斷國家의 定義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定義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具體的 適用 事例를 說明하는 데에는 不充分的 點이 드러난다. 그러나 대체로 無難한 定義를 Gilbert Caty의 定義에서 찾는다면 分斷國家란 “法的으로 持續되는 하나의 國家가 國際法上 兩者 모두 部分 國家의 同等한 地位를 가진 두개의 主體로 暫定的으로 分斷되어 있는 國家이다.”⁶³⁾

分斷國家의 類型은 分斷의 原因을 中心으로 나눌때,

① 國際型과 內爭型

分斷이 成立된 이후 分斷 雙方의 關係에 焦點을 맞출 때,

② 安定型과 不安定型으로 나눌 수 있다.⁶⁴⁾

國際型 分斷은 強大國들의 合意에 의한 分斷으로 獨逸과 韓半島가 그 代表的 例들이다.

內爭型 分斷은 民族內部的 紛爭의 結果이다. 中國과 베트남이 그 代表的 例가 된다.

安定型은 東西獨의 關係처럼 安定되어 있는 경우인데 西獨은 唯一代表權을 主張하기는 하였으나 基本法에서 西獨의 統治範圍를 西獨에 限定하고 있으며 東獨은 當初부터 西獨의 對等性和 個別性을 前提하는 2個國家說을 取했기 때문에 獨逸의 분

63) 金俊熙, “分斷國家 理論에서 본 韓半島의 장래,” 梁好民·李相禹·金學俊 編, 「民族統一의 展開」(서울: 形成社, 1982), p.156.

64) 日本慶應大學의 神名不=교수의 견해이다. 金學俊, “分斷史의 再照明,” 李洪九 等,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서울: 博英社, 1984), p.27.

단은 現狀維持型이 되어 있다.

不安定型의 代表的인 例는 베트남이었다. 分斷의 原因이 內爭에 있었던 바 當事者들이 內爭을 포기하지 않는 限 分斷이 不安定型이 될 수 밖에 없었다. 卽 內爭의 當事者들이 分斷이라는 現實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現狀을 타파하여 自身の 主導 아래 統一을 이룩하려고 할 때 그 分斷은 不安定型이 된다.⁶⁵⁾

韓半島의 分斷은 이러한 意味에서 國際型和 內爭型的 複合型이라고 할 수 있다.

2) 韓半島 分斷의 內外要因

民族分斷의 ㅅ은 이미 獨立運動의 展開過程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다른 民族의 경우도 同一한 點은 있지만 우선 地域的으로 美國, 中國, 蘇聯, 國內 등으로 活動의 舞臺가 나뉘어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理念的 對決이 이미 內爭性을 보여주고 있었다.⁶⁷⁾

한편 1943年 11月 20日의 카이로會談에서 알타, 그리고 포츠담宣言에 이르는 一連의 戰時 聯合國會談은 한반도 分割決定을 내린 바는 없었지만 結果的으로 戰後에 한반도 문제의 國際化 내지는 內爭의 자극을 가져왔던 것이다.

蘇聯의 對日戰 參戰後 소련의 한반도 진출에 對應하는 美國側의 一連의 조치는 美國이 한반도 문제에 소련과 共同管理者의 立場에서 國際紛爭을 防止한다는 態度였다. 말하자면 38度線에서의 分斷은 日本의 急作스런 降服, 소련 등의 한반도 진출 앞에서 제안된 미국 정부의 政治的 考慮의 產物이었던 것이다.

戰後 북한에 進駐해온 蘇聯은 單獨政權 形成의 길을 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美軍政과 土着民族勢力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한편 左右翼 투쟁이 첨예화하고 있었다. 美軍政은 建國準備委員會도 否認했을 뿐아니라 臨政의 存在도 否認해버렸다. 이러한 美國의 占領政策은 民族의 政治指導力을 弱화시켰고 分裂을 낳게 하였다.

1945年 12月 모스크바 協定의 내용은 南北韓 全域에 걸쳐 讚託과 反託의 民族

65) 上揭書, pp.27 - 28. 分斷原因에 따라 內亂에서 생긴 分斷국가와 冷戰에서 생긴 分斷 국가로 나누어 한국을 후자에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金俊熙, 前揭論文, pp.149 - 156.

66) 한국분단 과정에 관한 연구는 金學俊, 前揭論文 外에 趙淳昇 “韓國分斷의 기원”, 鄭鎔碩, “3.8선회정과 美國”, 李庭植, “1948년의 南北協商”, 梁好民·李相禹·金學俊 編, 前揭書; 金學俊,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서울:集文堂, 1983), pp.109 - 128 등이 있다.

67) 金學俊, 前揭論文, pp.30 - 31.

內爭을 보여준다.

1946年美·蘇共同委員會의 決裂, 그 後 1948年 UN臨時委員會의 活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國際的 영향력의 작용 앞에서 民族內部는 特히 南韓의 경우 單獨政府수립에 대한 讚反, 左右翼 間의 對立 等 內爭的 過程을 거치면서 南北의 分斷構造가 成立되어 갔다.

그 後의 南北韓은 서로 自己側의 體制와 統治를 상대방에게 확장한다는 條件下에서만 統一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한국전쟁은 不安定型 分단구조의 頂點이 되었던 것이다.⁶⁸⁾

나. 韓半島 統一과 國際環境

1) 4強關係와 韓半島

한반도 統一은 國際的 力學關係를 全的으로 벗어나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國際權力政治와 統一간의 相關關係를 現實的으로 理解해야 할 必要가 있다.

國際政治의 일반적인 屬性은 힘의 關係이다. 물론 理想主義는 道德과 原則을 내세우지만 現實上의 政治의 場은 힘의 關係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安保 및 統一은 美·日·中·蘇의 4強關係에 依存한다. 1970 年代에 와서 한반도를 에워싼 4強關係는 냉전 체제에서 데탕트체제로 전환, 再編되었다. 4強關係를 分化하면 世界的인 次元과 地域的인 次元, 그리고 그들의 對韓政策으로 나눌 수 있다.

世界的인 勢力均衡의 面에서 볼 때 韓半島의 군사적 가치는 戰略武器의 개발로 從前과 다르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高性能 戰略武器는 실제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는 要衝地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現實的으로 아직까지 한반도는 3個의 核強國과 1個의 經濟大國의 利益이 교차하고 있어 이들간의 均衡을 유지하는 데에 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

地域的인 勢力均衡의 面에서 볼 때 4強關係는 東아시아에서 多邊的인 것을 피하고 雙務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초래되는 균형은 強力한 同盟보다는 解弛된 協力으로 나타난다.

4強의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 한국통일 문제에 관한 限 그들은 合意를 이루지 못한다. 이 때문에 4強은 궁극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南北韓 當事者들에게 일일하

68) 上揭論文, pp.31 - 62.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 限定된 意味에서 한반도 문제는 “韓半島 問題의 韓國化”(Koreanization of the Korean Question) 現象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強의 對韓半島 政策에서 共通된 것은 그들이 默示的으로 한반도에서 한민족 중 두 國家가 존재하는 현상을 受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非公式的인 面에서 交叉接觸(cross contact)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受容은 南北韓 間に 독자적인 競爭을 더욱 深化하도록 하고 있다.⁶⁹⁾

2) 南北韓 關係의 現況

國際情勢는 構造的인 變化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南北韓은 生存과 正統性을 쟁취하려는 對決의 側面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兩側은 強大國들의 視角과는 달리 相對方的 위협에 대하여 자기 쪽의 安保, 經濟利益 및 威信을 지키려는 局地的 視角을 갖고 있다.

이러한 對決은 우선 軍事的인 面에서 치열하지만 強大國 및 第3世界國家들의 支持를 얻으려는 外交對決,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 對內外的으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느냐 하는 政治對決로 발전되고 있다. 軍事的으로는 현재 北韓이 數的 優位를 확보하고 있으며, 美軍의 존재가 이 격차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外交的으로는 韓國이 第3世界에 진출했고 올림픽을 유치한 뒤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經濟的인 경쟁은 한국이 우월한 상태에 있다. 政治對決은 현재 계속 중인데, 長期的인 안목에서 보면 多元的 體制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보다 安定되고, 制度化된 상태에서 正統性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⁷⁰⁾

2. 統一問題에 대한 民族主義的 視角

가. 統一의 意味

統一問題는 그 本質에 있어서 分斷國의 再統一이다.

分斷國의 再統一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두個 이상의 國家社會 單位가 하나의 國家社會 單位로 統合” 되는 일반적인 國家統合(integration)의 문제가 아니고⁷¹⁾

69) 安秉俊, “國際權力政治와 韓半島統一,” 李洪九 等 前掲書, pp.70 - 80.

70) 上掲論文, p.80.

71) 國土統一院, 「民族和合 民主統一論」 (1982), 1:61

統一社會를 이루었던 歷史的 經驗을 가진 國家社會間의 문제이다.⁷²⁾

再統一의 概念은 여러가지 見解差가 있으나⁷³⁾ 대체로 “두個·이상의 主權的인 行爲主體가 하나의 行爲主體로 된 상태”⁷⁴⁾ 라는 형식적인 정의와 “一定 領域內의 人間集團 內에서 개개인의 利害와 견해 차이를 平和的으로 조정하여 必要한 變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共同體意識(sense of community)이 構成員들 間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機構가 제도화 되어 있는 狀態”⁷⁵⁾ 라는 정의로 표현할 수 있다.

統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統合의 局面과 程度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⁷⁶⁾ 대체로 다음과 같은 條件의 充足이 생각될 수 있다.⁷⁷⁾

① 한반도 內에는 主權을 가진 國家가 하나 만이 존재해야 한다. 外部世界에 이 國家를 代表하는 政府도 하나여야 하고 國內에서도 最高統治權을 行使하는 政府가 하나여야 한다. (單一主權國家)

② 한반도 內에 거주하는 사람(外國國籍保有者 除外)은 모두 하나의 國民을 형성하고 주권행사에 있어서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權限을 가져야 한다.

(國民統合)

③ 모든 國民은 全領土內에 걸쳐 居住移轉 및 通行의 自由를 가져야 한다(生活空間의 統一).

④ 統一된 國家는 單一法體系와 單一軍隊를 보유하여야 한다(法秩序와 軍隊統合). 그러나 이러한 條件을 갖춘 單一主權國家에 있어서도 中央政府와 地域政府 間的

72) 李相禹, “民族統一의 課題”, 李洪九 等, 前揭書, p.160.

73) 國家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의 “統合”에 대한 定義는 李相禹가 責任 執筆한 國土統一院, 「機能主義 統合理論과 南北關係改善 方案 研究」(1976), pp.14 - 20. 참조.

74) Johan Galtung의 定義.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 No.4, 1968, p.377, 李相禹, 前揭論文, p.161. 再引用.

75) Karl W. Deutsch의 定義를 보완한 것. 李相禹, 前揭論文, p.161.

76) Joseph S. Nye는 地域統合의 類型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經濟的 統合(economic integration), 社會的 統合(social integration), 政治的 統合(political integration), 機關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 政策統合(policy integration), 態度統合(attitudinal integration), 安全共同體(security community), *Peace in Parts* (Boston: Little, Brown co. 1971) pp.24 - 54, 國土統一院,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1:63에서 再引用.

77) 李相禹, 前揭論文, pp.161 - 162.

權力配分 狀態에 따라 여러 類型의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⁷⁸⁾

첫째, 모든 權力이 中央政府에 집중되어 있는 單一國家, 現存하는 남북한 정부가 해체되어 單一中央政府를 수립하고 현존 分界線이 아무런 意味도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聯邦(federation). 現存 政府는 支分邦政府로 格下되어 대외주권을 포기하고, 대내주권에서도 일부 제한받는 상태에서 남북한 전체에 管割權을 가지는 中央政府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中央政府만이 대외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남북한 전체에 적용되는 法體系와 制度를 가지게 되며 中央政府 수립에 남북한 國民이 동등한 자격으로 參與하게 된다. 그러나 中央政府와의 權限配分協定에 따라 地方政府로서의 남북한 정부가 殘存하며 그 관할영역에만 적용되는 法秩序와 制度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單一國家體制와 區分된다.

셋째, 國家聯合(confederation 또는 commonwealth). 이것은 사실상의 두 國家가 合意된 범위내에서만 單一國家로 운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내주권은 각개 支分邦國家가 행사하고 對外主權만을 合意에 의해서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對外主權의 행사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支分邦國家가 별도로 獨立國家로 행동하는 수가 많다.

國家聯合의 경우에도 연합의 정도에 따라 名目上의 연합이 있을 수 있으며, 經濟的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聯合(共同市場 등), 군사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聯合등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제시하는 “高麗民主聯邦”은 形式에 있어서는 國家聯合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聯邦이며, 북한은 이를 國語로는 “聯邦”으로, 英文으로는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여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⁷⁹⁾

최근 한국내의 일부 學者들이 거론하고 있는 共榮邦 또는 福祉共同體(commonwealth)⁸⁰⁾는 國家聯合보다도 더 약한 協助體의 例로서 政治, 軍事 등 영역에서는 獨立國家로, 住民福祉領域에 국한해서 共同體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상이다.

78) 上揭論文. pp.162 - 163.

79) 聯邦制의 一般理論과 북한의 聯邦制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金明基, “聯邦制의 一般理論과 高麗聯邦制案 批判”, 「統一論叢」, 3卷 1號(國土統一院, 1983). 참조

80) 李洪九에 의해 구상된 것으로 現在의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의 住民福祉 增進을 위한 경제, 복지 영역에서 함께 협력하는 英聯邦에 준하는 國家聯合體. “Political Unification and Social Welfare,” *Korea & World Affairs*, Vol.8, No.1 (Spring 1984), pp.5 - 16.

이 중에서 理想的으로 가장 統合의 程度가 높은 것은 單一國家型이나 現存體制의 特性을 감안한다면 中間단계로서 聯邦 또는 國家聯合도 統一로 받아들일 수 있다.⁸¹⁾

나. 南北韓의 統一問題 認識

統一問題에 關해서 南北韓이 서로 統一을 民族的 念願으로 내세우면서도 合意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統一에 대한 南北間의 認識의 差異 때문이다.

한국의 統一問題 認識은 “ 1 民族 2 體制 ”의 現實認定에 기초하고 있다. “ 1 民族 2 體制 ”의 現實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⁸²⁾

한국이 統一에 대하여 생각하는 目標價値로서의 수준은 民族社會 發展의 한 中間目標로 認識하고 있다. 이 점을 體制의 문제와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表現한다면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固守하는 線에서 統一을 이룩하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統一을 爲하여 戰爭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武力에 依한 統一은 民族愛와 民族利益이라는 目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北韓의 統一問題에 對한 認識은 事實的이라기 보다 理想的 認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統一問題를 民族解放의 視角에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남북한 간의 政府의 對等性을 否認하며 統一을 分斷國의 再統一로 보지않고 民族解放의 完成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武力에 의해서라도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편 平和統一의 論理로서, 북반부에서의 人民政府와 남반부에서의 사회주의 革命을 통해 수립된 人民政府 間의 협상을 이룩하는 統一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의 차이에서 다음과 같은 남북한 관계가 存在할 수 있다.

- ① 韓國主導의 統一(Unification dictated by South Korea)
- ② 同盟的 共存(Coexistence based alliance system)
- ③ 中立的 共存(Neutral coexistence)
- ④ 敵對的 共存(Hostile coexistence)
- ⑤ 北韓主導의 統一(Unificathion dictated by North Korea)

81) 李相禹, 前揭論文, pp.162 - 164.

82) 이와 같은 認識의 出發을 公式的으로 表明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8월 15일 朴正熙 大統領의 演說에서 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韓國이 願하는 關係는 위에 적힌 順序대로 序列을 定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의 狀態는 敵對的 共存의 상태에 가까우다.⁸³⁾

結局 統一의 課題를 추구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南北韓 間의 關係 定立을 民族 利益에 有利한 方向으로 이끌어가는 努力인 것이다.

다. 南北韓의 統一政策

1) 北韓의 프롤레타리아 解放路線

北韓의 統一은 階級解放으로서의 統一을 意味한다.

北韓은 主權을 노동자, 농민, 兵士, 근로인텔리에 局限시키고(北韓憲法 第7條)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여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 하는(同第10條)階級國家이다.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은 그 規約⁸⁴⁾에서 스스로 노동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部隊임을 밝히면서 “...全國的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完수하고 ...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 社會를 건설” 하는 것을 目標로 宣言하면서 프롤레타리아 獨裁, 노동계급의 領導, 階級路線, “南朝鮮人民”들의 社會民主化 투쟁지원 등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의 統一問題에 관한 주장과 논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金日成 主體思想에 따르는 共產社會를 전국적 범위에서 建設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둘째, 노동자와 농민등 근로자만이 主權을 행사하는 階級獨裁國家를 만드는 것이 좋은 民族社會를 建設하는 길이고,

셋째, 統一은 南韓의 勞動者와 農民을 解放하기 위한 수단이고,

네째,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南韓에서도 노동자, 농민 革命으로 人民政府를 세워 北韓과 合作하여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다섯째, 南韓의 노동자, 농민해방을 돕기 위해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民族社會를 하나의 統合된 社會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南北韓에 걸친 노동자, 농민 지배의 프롤레타리아 共產社會 建設이 그 目標인

83) 上揭論文, pp.164 - 170.

84)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改正한 規約 國土統一院,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p.79에서 再引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統一은 프롤레타리아 階級간의 統一을 意味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民族成員을 階級으로 分離하는 새로운 垂直的 分斷을 意味하는 것이다.⁸⁵⁾

한편 북한이 提示하는 統一의 方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하나를 그들이 이른바 “平和統一” 方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南韓에서의 “人民主義革命”을 성취시켜 人民民主政府간의 協商에 의해 “평화적”으로 統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南韓의 現存 政權을 武力으로 타도하여 除去한다는 武力解放의 方法이다.

이 두가지 수단의 技術적 이용과 변화가 그 동안의 북한의 統一努力이었던 것이다.⁸⁶⁾ 1960년에 提案된 이래 '80년대에 이르러 더욱 強調하고 있는 “高麗民主聯邦制”의 主張이나, 최근의 對日, 對美關係의 改善을 爲한 노력⁸⁷⁾도 모두 위와 같은 統一路線의 구체적 事例인 것이다.

2) 韓國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韓國의 統一政策은 韓民族 社會構成員 모두를 思想, 階級, 地位 일체를 초월하여 하나의 民族成員으로서 和合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데에 重點을 두고 있다.

1982년 1월 22일에 선포된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은 그 동안의 韓國政府의 統一政策을 集約하여 發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⁸⁾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이 核心으로 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民族全體의 統一; “統一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依하여 獨占的, 排他的으로 主導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85) 上揭書, pp.79—81.

86) 북한의 統一政策의 戰略的 變化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趙淳昇, “北韓의 統一政策論”, 梁好民·李相禹·金學俊編, 前揭書; 高秉喆, “統一政策과 南北關係”, 韓國共產圈 研究協議會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 法文社, 1982); Sang-woo Rhee,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Review of Military Strategies”,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1983), ch.6.

87) 북한의 對日, 對美關係에 대한 설명은 로버트A. 스칼라피노, “對日, 對美關係,” 共產圈 研究協議會編, 前揭書.

88) 李相禹는 '80년대 統一政策은 이 틀로 고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方案 이상의 정책은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 前揭論文, p.198.

② 民主的 節次에 의한 平和統一；한국 정부는 統一이 거레 全體의 自由意思가 反映되는 民主的 節次에 의해야 함과 아울러 統一을 위한 武力 또는 暴力的 使用은 絶대로 容인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③ 民族, 民主, 自由, 福祉 保障의 統一；한국정부는 民族의 自主性이 보장되고 모든 民族成員의 民主的 參與와 個人의 自由가 보장되고 福祉에 대한 關점이 이루어지는 統一共和國를 성취한다는 전제에서 統一을 추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韓國政府는 統一이 아무리 民族的 念願일지라도 결국은 民族社會의 발전의 條件이지 그 자체가 最高 至上의 目標가 될 수 없다는 점과, 統一을 爲한 최대한의 양보 기준을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④ 民族統一協議會를 통한 統一憲法의 制定；韓國政府의 統一推進方案은 雙方 住民의 뜻을 대변하는 南北對表로 가칭 “民族統一協議會”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統一憲法”을 기초하도록 하고 “統一憲法”草案이 마련되면 雙方은 南北한 全域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한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확정 공포하고 그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統一國家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韓國政府는 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의 暫定的 措置로서 南北韓의 互惠平等, 內政不干涉,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 相互交流, 相互連絡代表部 설치 등을 규정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을 체결할 것을 재의하고 있다.

한국의 統一政策은 한마디로 現實을 認定하고 民族社會成員 모두가 하나의 統一된 社會內에 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⁸⁹⁾

이상에서의 論議를 통하여 南北韓의 統一政策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比較할 수가 있을 것이다.

- ① 北韓의 통일정책은 理想的인데 비해 한국은 現實的 認識을 기초로 하고 있다.
- ② 北韓이 추구하는 統一이 階級的인데 비해 한국은 民族的 統一을 모색하고 있다.
- ③ 北韓이 의지하려는 수단이 軍事的 내지는 平和的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革

89) 國土統一院, 前揭書, pp.82 - 85.

命的方式이며 전술전략적 차원에서 표방되는 것임에 비해 한국은 平和의 내지는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수단에 의하여 民族的 念願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結論적으로 表現한다면 남북한의 統一政策은 教條的鬭爭主義 對 合理的平和主義의 政策對決이며 革命的階級主義 對 平和的民族主義의 對決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 統一政策에 대한 反省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우리의 統一政策의 북한의 그것보다 合理的이며 民族主義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統一政策을 모색, 추구해나가는 實際上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統一問題의 認識에 있어서도 새로운 認識의 轉換을 주장하는 指摘들이 있다. 이러한 反省들을 整理하면서 統一문제를 民族主義的 視角에서 檢討하는 한편 새로운 認識의 出發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統一問題가 民族全體成員의 문제이며 至上의 課題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統一政策의 決定에 民主的 참여조직이 充分치 못하고, 統一政策을 다루는 機構가 綜合的 政策機構로서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⁹⁰⁾

둘째는 民族의 統一問題를 다루면서 주로 國際政治의 次元에서 理解한다거나 接近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勿論 한반도 문제에서의 국제정치 的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統一問題는 기본적으로 民族內部의 문제인 것이며 統一問題를 國際的 영향권의 문제로만 다룰 경우 統一問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民族의 自體力量을 과소 평가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強大國 病症”⁹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強大國 病症에 스스로 구속되어 있는 한 “통일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강대국 권력정치에 의해 풀릴 것이고 우리민족은 둘러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民族 虛無主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⁹²⁾

세째는 統一問題를 安保問題와 相馳되는 것이거나 또는 安保문제에 從屬되는 副

90) 李相禹는 國土統一院을 하나의 연구관리 재단 정도로 전략시켜 놓았었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 정책기구로 統一安保企劃院을 제안하고 있다.

91) Sung Chul Yang, “Korean Unification : A Functionalist Model,”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I, No.2 (July, 1972), pp.8 - 20. 金學俊, 前掲書, p.30에서 再引用.

92) 上掲書, pp.30 - 31.

次的인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의 진정한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안전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위협하지 않는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할 수 있을가의 문제였다”고 한 金瓊元의 指摘(1970)⁹³⁾은 記憶되어야 할 문제이다.

네째는 북한에 대한 냉전의식에만 매달려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물론 국제정치적 요인 내지는 북한측의 태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지만 韓國 內部에는 民族的 敵對意識을 키워왔고,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폐쇄화하는 데에 作用했다는 점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는 民族의 統一問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終局的으로는 體制問題에 연결되어 있다는 認識에 깊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⁹⁴⁾ 體制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民族主義的 視角에서 모색되었느냐 하는 점이 반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指摘한 사실들을 是認한다면 앞으로의 통일정책의 방향은 ①統一意志의 民主的 收斂 ② 自主性의 확립 ③ 統一問題의 價値序列의 회복 ④ 民族和合의 實現 ⑤ 體制問題의 認識과 모색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93) 金學俊, 前揭書, p.27.

94) 上揭書, p.31.

Ⅵ. 結論：統一이데올로기 - 韓國民族主義 - 의 課題

韓國의 統一政策이 民族主義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統一의 課題가 未完成인 채로 남아있는 限 統一을 위한 民族主義의 努力도 또한 未完成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끊임없는 民族主義의 모색이 要請된다.

韓半島 統一을 爲한 民族主義의 課題를 對內外的으로 區分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對外的 側面에서 消極的으로는 國際的 環境條件의 障礙的 要素를 民族主義의 立場에서 拒否할 수 있는 拒否能力(denial capability)을 키우는 것이다. 對外問題에 있어서 積極的인 課題는 체제의 理念的 相應性(ideological compatibility)을 획득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理念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국제적 영향 要因을 통일을 위한 우리의 民族主義의 努力에 同參할 수 있도록 하는 “同意化能力”을 길러나가는 것이다.

對內的 側面에서는 韓國內部에서 民族主義의 團合과 意志에 依해 한국내의 민족 性원전체가 統一의 課題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과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民族主義의 統一努力에 同行하도록 하는 能力과 여건의 造成이다.

前章에서 記述한 우리의 統一努力에 대한 반성과 위에서 말한 統一의 課題들을 수렴하면서 韓國民族主義의 立場에서 統一의 課題를 다음과 같이 提示할 수 있다.

1. 目標價値로서 民族主義의 확립

統一政策에 대한 그 동안의 反省的 指摘들은 大體로 統一政策이 政治的 次元의 問題로만 利用되었다는 점, 外交政策의 下位概念으로 다루어졌다는 점, 또는 安保 내지 南北對決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점 等이다.

이렇게 된 理由는 하나는 統一에 대한 規範文化가 正當하게 確立되지 못한 데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統一問題를 民族主義의 視角에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目標文化로서 民族主義가 正當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위에 말한 指摘들은 줄어들지 도 모른다.

民族主義가 正當하게 民族成員의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統一問題는 政

治的 次元에서 利用될 性格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無視할 수가 없을 것이다. 外交政策의 문제도 外交政策을 위한 統一政策이 아니라 統一政策을 爲한 수단으로서 外交政策의 位置를 찾을 것이다. 民族主義의 觀點에 설 때 남북간의 대립을 냉전 대결의 차원에서만 보려는 폭 좁은 眺望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統一意志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韓國國民의 統一意志의 내용을 自由民主主義 체제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目標價値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⁹⁵⁾ 그러나 自由民主主義는 民族主義의 下位概念이다. 따라서 韓國國民의 統一意志는 民族主義 目標價値에 대한 信念으로 발전해야 한다. 설사 民族主義와 自由民主主義가 그 內容에 있어서 同心圓을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統一意志의 目標價値는 民族主義로 概念化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⁹⁶⁾

뿐만 아니라 民族主義는 概念上 남북한의 共通의 準據基準이 될 수도 있다. 표방하는 民族主義의 概念이 서로 다를지라도⁹⁷⁾ 일단 外形上 同一한 理念의 準據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남북한의 競爭努力을 體制競爭이라기보다 民族主義競爭의 樣相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民族主義를 目標價値로서 추구하려면 우선 民族主義를 目標文化로서 充實한 內容이 具備되도록 하는 民族主義를 正當하게 이데올로기化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民族成員全體에 民族主義의 信念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特히 남북분단의 기간이 經過할 수록 民族統一에 對한 熱望이 점진적으로 희석되고 있는 現實에서 統一이데올로기로서 韓國民族主義를 目標文化로서 定

95) 李相禹, 前揭論文, p.166,201.

96) 다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自由民主主義를 우리의 國是처럼들 말하지만 그 實體가 오늘날 우리 民衆이 겪고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共產主義와의 대결에서 끝내지킬 據點으로는 여기서 취할 것이 별로 없다.…… 너무도 名과 實이 동떨어져 그것을 지킬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 千寬宇, “民族統一을 위한 나의 提言,” 「創造」, 1972. 9. p.34.

97) 북한에서의 民族문제에 대한 접근이 계급주의적이며 革命戰略과 관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梁好民, “北韓의 民族理念:북한의 實踐的 課題를 중심으로,” 梁好民等 共編, 前揭書; 申宗淳,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 「第三回 合同學術大會論文集」(한국정치학회, 1979); 國土統一院,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의 正統性」(1976); 「北韓社會와 民族主義 問題」(1976); 「南北韓의 民族概念比較研究」(1978).

立하는 일과 擴散하는 문제는 절실한 要請을 받고 있다.

2. 民主化

統一問題의 해결은 相對方에 대한 政治問題의 제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重要한 점은 자기자신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⁹⁸⁾

民主國家인 한국의 統一意志의 主體는 국민이다. 국민들의 自發的인 支持와 強力한 聲援이 없이는 統一政策을 밀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統一政策의 모색은 國民全體의 民主的 參與가 실질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民族의 統一意志가 확립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統一문제에 관한 論議가 安保문제와의 相關性 때문에 활발치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統一문제에 대한 논의의 活性化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消極的 姿勢가 國民的 統合과 社會的 安정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安保문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⁹⁹⁾

남북한간의 對決을 政治對決 또는 체제경쟁의 면에서 본다면 民族成員의 支持여부가 勝敗의 關鍵이 된다. 따라서 統一政策에 國民의 意志를 수렴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社會活動의 구조를 더욱 民主化해나가야 한다.¹⁰⁰⁾ 體制民主化는 民族的 統一推進力의 확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理念的 相應性을 통한 유대를 확보한다는 意味를 갖게 된다.¹⁰¹⁾

3. 自立的 民族經濟의 實現

國民意志의 統一과 對外的 自主性의 확보를 爲하여 經濟的 課題들이 統一政策의 次元에서 檢討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우선 自主性의 확보를 爲하여 經濟體制의 對外的 從屬性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 된다.

98) 黃性橫, “民族和合과 統一文化 創造를 위한 接近: 社會的 側面에서의 接近,” 「統一安保教育」제 13집 (國土統一院, 1984, 5.6) : 34.

99) 金學俊, 前揭書, p.27.

100) 李相禹, 前揭論文, 李洪九 等, 前揭書, p.206.

101) 李相禹, 前揭論文, 梁好民 等 共編, 前揭書, p.22.

102) “自立的 民族經濟의 實現”이라는 概念은 國土統一院 후원 하에 열린 제 5차 통일문제 학

對內的으로는 産業構造의 二重性과 企業經營과 勞使關係의 改善, 所得의 再分配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卽 國民經濟를 형성하는 各 産業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産業間的 均衡적 발전이 도모되어야 하며 國民經濟의 主體的 條件이 최대한 充足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所得의 再分配와 勞使關係의 改善으로 階級的 對立의 發生根源을 제거할 뿐 아니라 民族的 團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 對北韓 受容政策의 開發

우리의 統一政策을 現實的 側面에서 보면 對北韓政策은 북한을 國際社會에서 孤立化하는 한편 國力의 相對的 優위를 통하여 統一條件을 充足시키려는 것이었다.¹⁰³⁾

그러나 우리의 統一政策은 平和統一 3大原則이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나타나 있듯이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對話와 協商을 爲해서는 開放政策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하여 우리자신을 開放하는 한편 북한社會의 開放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의 내부구조 자체가 민족간의 적대의식을 초극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를 대립관계에서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안복에서 妥協關係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제의에 대하여 극단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배척하기보다 受容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既得權의 양보와 포기를 쌍방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現實的 條件이 前提되어야 한다. 북한은 아직까지 強力한 군사

술회의 (1979)에서 邊衡尹이 統一된 韓國의 未來目標로 提示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當面目標의 概念으로 쓰고 있다. 다음 참조 邊衡尹, “統一韓國의 未來像: 經濟分野” 「統一政策」, 第5卷, 第4號 (平和統一研究所, 1979).

103) 李相禹, 前揭論文, 李洪九 等, 前揭書, p.207.

104) 金學俊, 前揭書, p.28,107. 李洪九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을 통한 近代化 實驗을 民族的 成就라는 肯定的 側面을 부각시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李洪九, “分斷 40년, 새 統一觀의 모색”, 李洪九 等, 前揭書, p.15.

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增強을 서두르고 있다. 이 軍事力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지녀야 한다. 말하자면 國力의 伸張이 先決要件인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아래 내놓는 북한의 제의마저 소화·受容할 수 있는 수준으로 國力을 향상시켜야 한다.¹⁰⁵⁾

그러는 한편 이와 같은 體制優位의 時期를 想定하여 우리가 北韓을 受容할 수 있는 可能性을 미리 檢討해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해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李洪九의 共榮邦(commonwealth)案은 이 점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5. 韓半島問題의 韓國化

韓半島問題에 관한 주변 4강의 勢力均衡과 利害의 相衝이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그들을 습수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韓半島問題의 궁극적인 해결을 當事者들에게 일임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前述한 바와 같다.

制限된 意味에서 “韓半島問題의 韓國化”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4강의 韓半島政策이 統一指向的이라기 보다는 分斷指向的이며 철저히 脫民族主義的 性格을 지닌 것으로 단정할 때¹⁰⁶⁾ 우리의 統一努力은 이의 克服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外交政策은 強大國 病症에서 脫皮하여 “韓半島問題의 韓國化”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外勢에의 依存은 韓國民族主義에 대한 背板일 뿐만 아니라 統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¹⁰⁷⁾

따라서 우리의 統一努力은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統一에 관한 한 “脫強大國化” 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을 통해서 前述한 “拒否能力”과 함께 國際的 영향요인을 우리의 政策에 “同意化”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으로 統一이 메올로기로서의 韓國民族主義의 課題를 정리해보았다.

이와 같은 課題의 成就를 위한 努力과 그 進展에 따라 韓國民族主義는 統一이데

105) 金學俊, 前揭書, p.35.

106) 金學俊, “1970년대의 統一論議: 국제정치학적인 평가,” 梁好民 等 共編, 前揭書, p.359.

107) 金學俊, 前揭書, p.16.

올로기로서 民族의 意志를 고무시켜갈 것이고 民族의 宿願인 統一은 不確實한 所
望의 座標에서 具體的인 現實로 눈앞에 다가와 民族史의 새 章을 열게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單 行 本〉

- 1) 國土統一院.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의 正統性」. 1976.
- 2) _____ . 「機能主義 統合理論과 南北關係改善方案 研究」. 1976.
- 3) _____ . 「南北韓의 民族概念 比交研究」. 1978.
- 4) _____ . 「民族和合 民主統一論」. 1982.
- 5) _____ . 「北韓社會와 民族主義의 正統性」. 1976.
- 6) _____ . 「統一理念으로서의 韓國民族主義에 관한 理論定立」. 1973.
- 7) 金學俊 .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서울: 集文堂, 1983.
- 8) 盧在鳳編. 「韓國民族主義와 國際政治」. 서울: 民音社, 1983.
- 9) 白樂晴編.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1.
- 10) 梁好民 . 李相禹 . 金學俊編. 「民族統一論의 展開」. 서울: 形成社, 1982.
- 11) 梁好民 . 韓培浩 . 盧在鳳 . 文丞益 . 崔相龍 .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서울: 亞細亞政策 研究院, 1977.
- 12) 李奎浩 . 「民族的 正體性を 위한 鬭爭: 第3世界에 있어서」. 서울: 文佑社, 1983.
- 13) 李洪九 . 金學俊 . 安秉俊 . 陳德奎 . 李相禹 .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서울: 博英社, 1984.
- 14) 陳德奎 . 「現代民族主義의 이론구조」. 서울: 지식산업사, 1983.
- 15) 차기벽 .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81.
- 16)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法文社, 1982.
- 17) Hayes, Carlton J.H. 「民族主義: 理念과 歷史」. 車基璧 譯. 서울: 한길사, 1981.
- 18)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Newyork: Macmillan, 1960.

- 19) Carr, Edward H.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 Macmillan & Co., 1968.
- 20) Deutsch, Karl w.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ationality*. Cambridge : The M. I. T. Press, 1969.
- 21) Kohn, Hans.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Newyork : D van Nostrand Company, 1965.
- 22) _____ . *The Twentieth Century*. Newyork : Macmillan & co, 1957.
- 23) Rhee Sang-woo.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Seoul : Soğang University press, 1983.
- 24) Smith, Anthony D. *The Theory of Nationalism*. Newyork : Harper & Row Publication, 1971.
- 25)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26) Wallace, Anthony F.C. *Culture and Personality*. Newyork : Random House, Inc., 1961.

〈 論 文 〉

- 1) 金明基. “聯邦制의 一般理論과 高麗聯邦制案批判”. 「統一論叢」, 3卷1號. 國土統一院, 1983.
- 2) 盧泰久. “한국민족주의의 理念像”. 「政經文化」, 1983. 9.
- 3) 閔錫弘. “民族主義의 理念”. 「思想界」, 1966. 2. 附錄.
- 4) 邊衡尹. “統一韓國의 未來像 : 經濟分野”. 「統一政策」, 第5卷 第4號. 平和統一研究所, 1979.
- 5) 申宗淳.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民族과 民族主義”. 「第三回 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 1979.
- 6) 李用熙. “現代民族主義”. 「新東亞」, 1973. 9.
- 7) 李禎秀. “北韓 統一方案의 性格變化에 관한 體系的 研究(1953 ~ 1973) : 金日成의 統治名分 確保와 관련하여”. 「統一政策」, 第5卷 第2號. 平和統一研究所, 1979.

- 8) 車基燧. “戰後民族主義의 方向.” 「思想界」, 1963.12.
- 9) 千寬宇. “民族統一을 위한 나의 提言.” 「創造」, 1972. 9.
- 10) 黃性模. “民族和合과 統一文化創造를 위한 接近: 社會的 側面에서의 接近.” 「統一安保教育」 제 13 집 (1984, 5. 6).
- 11) Lee Hongkoo. “Political Unificatin and Social Welfare.” *Korea & World Affairs*. Vol. 8, No. 1 (Spring 1984).
- 12) Stokes, Gale. “The Underdeveloped Theory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Vol. 31, No.1 (October 1978).



Abstract

Korean Nationalism and the Tasks of Unification

Kim Dong - Sik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h Seong - Joon***

This study is to suggest what the Korean nationalism as Korean unification ideology seeks out. Based on the review on the concept of nationalism, I examined what the Korean nationalism ought to be as an ideology for Korean situation and what the Korean nationalism sought out as an Unification ideology in terms of justification and means of unifica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in terms of normative approach and historical approach, since the scope of study is confined to Korean nationalism as a 'Sollen' and normative things needed for Unification.

Nationalism is thought to be both an ideology and behavioral principles which emphasize ethnic tradition,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accomplishment expressed in ethnic group. Nationalism was a diminishing ideology after world war II. However the requirements of nationalism is increasing recently, because of the increase of the role of strong nations among international politics, competition among nation-states and the upris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resulted from modernization process, and the cultural conflict caused by frequent contacts between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Korean nationalism is different from other nationalism of newly independent countries in that Korea is a nation-state and pursuits modernization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5.

and democratization in the case of a divided nation.

Compared with Western nationalism as an ethnocentrism, Korean nationalism is a resistance against strong outwards. Therefore Korean nationalism ought to seek out the autonomy,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Because these problems solved in terms of nationalism influence each other, the choice of Unification strategy affects other problems.

Korean nationalism as Korean unification ideology is thought to have the goal culture in terms of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and the transfer culture which provides the means of unification.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on which Korean nationalism is based a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the theory of divided nations, Korean division is a mixed form of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conflict and is unsafe.

2. Even though Korean Question as an international affair is under four neighboring powerful nations, there is a kind of Koreanization of the Korean Question in a restricted sense.

3. While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are a kind of proletarian revolution by military means, those of South Korea seek out the unification of nation as a whole based on national unity.

4. Even though the unification policies of Korea are based on nationalism, there have been weak efforts on unification in that the organizat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are not sufficient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The tendency of discussion on domestic affairs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also cause weak endeavours on unification, while there is a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tasks of Korean nationalism as unification ideology are as follows :

For Korean unification, the increase of denial capabilities which are able to get rid of international obstacles and the continuity of ideological compatibility for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e needed in terms of foreign relations, and further we must have the agreement capabilities in order to utilize international influences. Domestically, there are needs of an unity and a consensus among Korean people which are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to be on the road to unification in the sense of nationalism. Upon the above discussions Korean nationalism must seek out

(1) the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ism as goal culture, (2) democratization, (3) the realization of self-sufficient domestic economy, (4)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olicy for North Korea, and (5) the diplomatic efforts for Koreanization of the Korean Question.

